



“매일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이 대사는 작년 개봉해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로버트 드니로 · 앤 해서웨이 주연의 영화 <인턴, The Intern>에서 주인공 벤 휘테커가 인턴에 지원했을 당시 말한 지원동기입니다. 인턴이 끝나고 본격적인 ‘취준생’이 되어 돌이켜 보니 겨울방학 동안 매일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비록 즐거웠던 추억이 되었지만요.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난 후 AK플라자 수원점 인턴십을 가기 직전 봤던 영화가 바로 <인턴>이었습니다. 수많은 <인턴>의 주옥같은 명대사 중 압권은 벤 휘테커의 **“I read once that musicians don't retire. They stop when there's no more music in them. Well, I still have music in me. Absolutely positive about that.”** 라는 명대사였습니다. 저는 벤 휘테커처럼 배움에 관한 무궁한 열정과 의지를 갖고 인턴십에 임하겠다는 다짐을 갖고 첫 출근을 하였습니다.

인턴십 첫 날 인재개발팀 주관 하에 꼭 필요한 교육(사내예절, 상품분석, 마케팅원론, 매장 탐방 등)을 마친 인턴들은 이튿날 각자 지망한 팀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저는 지하 1층에 자리한 식품팀에 배치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백화점에서 식품관은 고객들의 동선과 가장 밀접한 곳에 배치되어 있고 최근 가장 주목받는 쇼핑 트렌드인 **'Living' & Lifestyle'**을 가장 먼저 구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장 유동인구가 많아서 살아 숨쉬는 공간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백화점 후방 즉 **'Background'**로 가면 고객들의 원활한 쇼핑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꼭 찬 스케줄 아래 헌신하는 직원들의 숨가쁜 노고가 없으면 결코 돌아가지 않는 공간이 식품관입니다. 백화점의 ‘명과 암’을 가장 극명하게 대비해서 보여주는 공간이 식품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식품팀에 배치받고 난 후 이구동성으로 관리자들이 한 말은 **“한창 바쁠 때 와서 고생하겠네.”** 이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인턴 근무 기간 동안 크리스마스부터 시작해서 연말 - 설 - 발렌타인데이로 이어지는 끊임없는 대목 행사 Cycle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렇듯 식품팀은 시기별로 준비해야 하는 행사가 많아 상대적으로 힘든 부서이긴 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도 많고 개인적 성취감도 높아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부서였습니다. 저 역시 그 점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식품팀에서 서비스 마인드 함양부터 시작해 가격표 반영(쇼카드 작성), POP(광고판)디자인 제작, 공간 활용 제안, 이동식 매대제작에 이르기까지 유통관리자들이 기본적으로 신경써야 하는 것들을 배워나갔습니다. 인턴들이 직접 하기 어려운 ‘발주’나 ‘매출관리’, ‘재고관리’, ‘인력관리’ 등은 선배 관리자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조언을 구하면서 돌아가는 원리를 익혔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회초년생들이 그렇듯이 초반부에는 조직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4주차에 있었던 팀 회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난 후에는 간단한 농담을 건넬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상당한 고비였던 설 선물세트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식품 최대 매출 시즌인 양대 명절에는 2주 전부터 관리자들의 휴무도 제한될 정도로 다들 고생하는 기간이었죠. 저 역시 설 연휴 직전 2주 동안은 거의 작업복 차림으로 검품장과 창고를 오가며 매일 선물세트 직배송 · 짐직배 · 택배 분류 및 배송작업을 했습니다. 날씨가 무척 추웠고 물량이 많이 밀린 날에는 늦게 갈 때가 많았지만, 어느 때보다 열심히 즐겁게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속한 조직에서 명확한 역할을 부여받고 일을 분담하면서 생기는 성취감과 희열을 가장 크게 느꼈던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덤으로 다같이 고생하고 난 후 함께 퇴근하면서 팀원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듣고,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마시며 회포를 푸는 재미는 정말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었죠. 그렇게 설이 지나고 발렌타인데이를 거쳐 9주차 마지막 행사였던 **French Gourmet Festival**까지 지나고 나니 순식간에 인턴십을 마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인턴십 종료 하루 전날엔 제가 주로 일했었던 파트인 가공식품 팀원들과의 회식이 있었습니다. 2차 때 팀원들이 다들 그동안 제가 고생 정말 많이 했고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었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가만히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감격스러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멋도 모르고 무작정 잘 해야겠다는 의무감에서 시작했지만, 갈수록 일에 몰입하여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어느새 조직이 원하는 퍼즐 한 조각이 되어있는 제 자신에 대한 감동과 함께, 이제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정들었던 식품팀 생활을 정리해야 한다는 회한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인턴십 생활을 돌이켜 보면서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나중에 어떤 회사에 가더라도 이렇게 좋은 팀 분위기와 사람들을 과연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식품팀에 있었던 9주 동안은 정말 좋은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유통에 대한 깊은 고찰과 함께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진지한 인생 얘기를 해주신 오만석 식품팀장님을 비롯해서 16분의 식품팀원들은 모두들 하나같이 배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아 주셨습니다. 회사근무환경을 비롯해 유통의 명과 암에 대해 가감없이 솔직한 답변을 많이 해주셨고,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를 고려해볼 수밖에 없는 인턴들의 고민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이번 인턴십을 통해 취업준비, 업무역량, 대인관계에 있어 많이 향상된 제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9주간의 짧다면 짧은 인턴십 기간이었지만, 정말 많은 것을 얻고 느끼면서 인턴십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애인경천’이라는 슬로건에서 보듯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기업인 애경에서 소

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AK플라자 유통부문과 본교 국제학부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